

2장 소제

소제는 번제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소제는 이른바 ‘피 없는 제사’이다. 익히지 않은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요리한 음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었고 또한 유향을 피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였다.

1. 익히지 않은 소제 (2:1-3)

고운 가루를 소제로 바치려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왔다. 제사장은 거기에서 한 움큼을 취하되 모든 유향도 함께 취하여서 기념물로 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음식제사였다.

소제로 드리는 것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불사르고 대부분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사용되었다(2:3; 6:24-30).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저녁으로 소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제사장들의 봉사를 돕고 지지하였다.

2. 익힌 음식의 소제 (2:4-10)

익힌 음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요리하였다. (1) 화덕에 굽거나 (2) 번철에 부치나 (3) 솥에 삶은 것도 소제로 드렸다. 요리하는 음식에 기름을 넣어서 할 수 있으나 누룩은 넣지 않도록 하였다.

음식 소제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 중에서 일부를 기념할 것으로 취하여서 단 위에서 불로 살랐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고 화제[음식 제사였다.

3. 소제에 넣을 것과 넣지 않을 것 (2:11-13)

소제에서는 누룩과 꿀을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식물을 분해하고 변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넣었는데(5:13), 이것은 맛과 관련되고, 또한 부패의 방지와 불변함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4. 첫 이삭의 소제 (2:14-16)

첫 이삭의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을 두었다. '의심의 소제'에 기름과 유향을 두지 않는 것이나(민 5:15), 속죄제로 드리는 소제에서 기름과 유향을 놓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5:11), 여기에서 기름과 유향은 추수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묵상과 실천:

소제의 요소와 의미

소제에는 속죄하는 부분이 없는데, 대신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함께 드렸다. 속죄의 의미가 있는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소제로 표현하는 것이 있었다. 즉 속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소제로 표현하였다.

이 사실은 소제의 요소를 살펴볼 때에 더 명확해진다. 소제의 세 요소는 ‘가루’ ‘기름’ ‘유향’인데 이 세 가지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 위의 떡, 등잔의 기름, 분향단의 유향과 연결이 된다. 제사장이 매 안식일에 진설병 상 위에 떡을 열 두 조각을 놓았고, 또한 아침저녁으로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거나 정리하고, 분향단에서 유향을 태웠다. 진설병과 등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나타내고, 분향단에서 유향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성소 안의 세 가지 성물과 연결된 세 가지 요소를 드리는 소제는 여호와께 자기의 생활을 모두 드리는 것을 뜻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생활을 돌보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소제는 번제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두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다.

2장 익힘 문제

1. 1) 여호와게 드리는 소제에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1절)
2)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디에서 또 나오니까?
- 2 소제물의 남은 것은 누구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까? (3절)
3. 1) 모든 소제물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2) 모든 소제물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3)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살았는데 이런 제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4. 여호와께서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면서 그 소금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3절)

